

초등음악교육에서 체계적인 선율 창작지도 연구

조 치 노*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창작을 위한 교과서 동요선율 분석
 - 1. 8마디 선율의 일반적인 특징
 - 2. 16마디 선율의 일반적인 특징
 - III. 형식에 따른 선율 창작
 - 1. 8마디 선율 창작
 - 2. 16마디 선율 창작
 - IV. 끝내면서
- * 참고문헌

I.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대학의 『초등음악과교육』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음악과의 내용 체계를 음악성 계발과 창의성 계발, 그리고 음악적 정서 함양을 목표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가지 활동 영역으로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위해서는 가창이나 기악, 감상, 그리고 창작 분야 중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그 중에서도 창작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음악성을 신장시켜주는데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주나 감상을 통해서 창의력을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발휘할 수도 있지만 창작 활동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형성하여 음악적 원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음악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제시된 범주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즉흥연주를 시도하고 선율이나 리듬 등을 기보하고 연주하는 창작 활동은 그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 음악 작품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음악 활동 보다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작 관련 활동은 교사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창작지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단순히 선율을 만들라고 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등 다른 음악 활동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작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음악적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활동을 잘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이해부족으로 흥미를 잃고 무관심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음악 창작학습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창작 영역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선율 창작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우리 대학의 3학년 1학기 필수 강좌인 『초등음악과교육 II』에서 모든 수강생들이 체계적으로 실습한 선율 창작에 관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선율 창작의 중심 조성은 장조 음계이며, 선율은 8마디 구조에서 16마디 구조까지 한정하였다.

II. 창작을 위한 교과서 동요 선율 분석

선율 창작실습의 첫 단계는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 선율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새로운 선율 창작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1. 8마디 선율의 일반적인 특징

서양음계에 의해 작곡된 동요 선율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그것은 2마디로 구성되는 동기²⁾가 으뜸화음에서 딸림화음이나 비금딸림화음(혹은 으뜸화음)

1) 조치노, “창의성 계발을 위한 초등창작지도 방안”,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5집, 2006), p. 246.

의 화성적 내용을 가지면서 제시되면, 3번째와 4번째 마디에 걸쳐 동기에 대한 응답을 이룬다. 이때 응답의 4번째 마디는 반드시 잠시 쉬는 듯한 반중지 형태를 갖는다(화성은 딸림화음이나 으뜸화음을 구성한다). 이러한 4마디 선율구조 a는 대부분 a'로 동형진행을 형성하면서 반복되는데, 반드시 마디 7에서 딸림화음(또는 딸림7화음)의 구성 음들을 하면서 이 선율이 마감된다는 느낌을 예고하고 마디 8에서 으뜸화음의 구성음으로 마친다.³⁾

선율의 기본 구성음들이 결정되면 동기의 리듬과 어울리는 리듬꼴을 사용하면서 선율을 만드는데, 가장 논리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동기에서 사용된 리듬을 반복하거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율 구성 방법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8마디 창작 선율 실습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러한 선율 구조를 갖는 동요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 1〉 a(4)+a'(4)

어머님 은혜

-2부 합창-

윤춘병 작사
박제훈 작곡

부동빠르게 *mf*

1. 높고 높으신 하늘이라 맡 들 하 - 지 만 -
2.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맡 들 하 지 만 -

니는 나는 눈은 눈은 또 하나 - 있 지 -
니는 나는 넓은 눈은 또 하나 - 있 지 -

〈악보 1〉의 '어머님 은혜'에서 동기 선율은 화성적으로 으뜸화음(마디 1)과 버금 딸림화음과 으뜸화음(마디 2)의 구성음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응답 선율은 버

2) 동기는 그 악곡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음악적 아이디어이다. 따라서 창작에 숙달되지 않은 학습자는 동기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작 실습에서 동기는 교사가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3) 이러한 선율적 구조는 작곡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8마디 창작 선율 실습 역시 이러한 구조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금딸림화음과 으뜸화음(마디 3)을 거쳐 딸림화음의 구성음으로(마디 4) 반중지하고 있다. 이러한 4마디 선율 a는 동형진행의 선율 a'로 반복되면서 통상적인 8마디 선율 구조를 갖는데, 마디 8의 완전 종지를 위해 마디 7에서는 딸림7화음의 구성음들이 사용되고 있다.

마디 3의 응답 선율의 리듬은 마디 1의 리듬과 마디 2의 첫 3박자의 8분음표 리듬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다. 마디 4에서는 동기 선율이 제시되고 응답되면서 잠시 머무는 반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음으로 5박을 지속하고 있다(강박에서 반중지).⁴⁾

〈악보 2〉 a + a'

섬집 아기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

조금느리게
mp

바장조의 선율인 〈악보 2〉의 동기 선율은 화성적으로 으뜸화음(마디 1)과 딸림화음(마디 2)의 구성음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응답 선율은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마디 3)을 거쳐 딸림화음의 구성음으로(마디 4) 반중지하고 있다. 이러한 4마디 선율 a는 동형진행의 선율 a'로 반복되는데, 마디 8의 완전 종지를 위해 마디 7에서는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구성음들이 사용되고 있다.

4) 4마디로 구성되는 음악에서 각 단의 마지막 마디(예를 들면, 4, 8, 12, 16번째 마디들)에 사용되는 음은 하나의 음을 사용해서 정해진 박자의 대부분을 지속시키는 것이 짜임새 있는 선율 작법이다. 즉, 강박으로 반중지나 종지를 형성한다.

<악보 3> a+a'+b+a'

산바람 강바람

윤석중 작사
박태연 작곡

보통빠르게
mf

1. 산 위 에서 부 는 바 람 서 늘 한 바 람
2. 강 가 에서 부 는 바 람 시 원 한 바 람

5

그 바 람 은 좋 은 바 람 고 마 운 바 람
그 바 람 은 좋 은 바 람 고 마 운 바 람

9
mp

여 름 에 나 무 숲 이 나 무 를 할 때
사 공 이 배 물 것 다 잡 이 들 어 도

13
mf

이 - 마 에 흐 른 밤 을 씻 어 준 대 요
저 폰 사 서 나 뭇 배 를 저 어 간 대 요

<악보 3>의 동기 선율은 화성적으로 으뜸화음(마디 1)과 딸림화음(마디 2)의 구성음을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응답 선율은 으뜸화음(마디 3)을 거쳐 딸림화음의 구성음으로(마디 4) 반종지하고 있다. 이러한 4마디 선율 a는 <악보 1>의 동일한 선율을 반복과는 약간 다르게 리듬동형진행의 선율 a'로 반복된다. 마디 2의 딸림화음의 구성음들은 마디 6에서는 비금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의 구성음들을 사용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이 선율에서 리듬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개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동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리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작법 역시 초보자들이 응답 선율의 리듬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16마디 선율의 일반적인 특징

16마디 구조의 선율 창작은 원칙적으로 a(4)+a'(4)로 구성되는 8마디 선율을 가지고 나머지 8마디의 선율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요 선율 구조는 b(4)+a'(4) 형태이다. 여기에서 b부분은 4마디에 불과하지만 앞의 a 부분과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선율의 리듬이나 화성감들이 대조적이거나 어느 정도 변화된 선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악보 3>에서 셋째 단(마디 9-12)은 b부분으로 선율은 딸림화음의 구성음으로 시작해서 으뜸화음(마디 10)을 거쳐 딸림화음(마디 11-12)의 선율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 동요의 b부분은 시작과 끝이 딸림화음의 구성음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선율의 리듬은 마디 9의 2분음표의 리듬 외에는 앞 8마디에서 사용된 리

<악보 4> a+a'+b+a'

방울꽃

임교순 작사
이수인 작곡

보통빠르게

1. 아 무 도 오 시 않 는 깊 은 산 - 속 에
2. 산 바 람 지 나 가 다 긴 드 리 - 년 은

쏜 로 룡 방 울 꽃 이 훈 자 췌 - 어 요
쪼 고 룡 방 울 소 리 쏠 아 지 - 겠 다

산 새 들 물 래 물 래 꺾 어 - 갈 래 요
산 노 루 올 음 소 리 메 아 - 리 치 면

13
쏜 로 룡 소 리 날 까 그 냥 들 - 니 다
쪼 고 룡 방 울 소 리 쏠 아 지 - 겠 다

듬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마디 13-16)은 둘째 부분을 반복하면서 이 동요는 짜임새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악보 4〉는 전형적인 a(4)+a'(4)+b(4)+a'(4) 형식의 16마디 선율을 나타낸다. 첫 번째 a부분의 동기는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을 기반으로 점8분음표의 리듬과 함께 경쾌한 느낌의 선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디 3-4의 응답선율은 동기의 리듬을 활용하면서 으뜸화음을 거쳐 딸림화음으로 반중지를 형성한다. 이것은 두 번째 a'에 그대로 동형진행으로 반복되는데, 중지를 위해서 마디 7의 셋째 박에서 선율이 딸림7화음의 선율로 2도 하행하면서 중지감을 부여하고 있다.

b부분은 점4분음표의 리듬을 하나 첨가한 것 외에는 앞부분의 리듬을 적절히 혼합해서 배열하고 있다. 선율은 〈악보 3〉에서와 같이 딸림화음으로 시작해서 으뜸화음으로 진행하며, 마디 11의 버금딸림화음⁵⁾을 거쳐 딸림화음으로 마친다.

〈악보 5〉 a+a'+b+b'

섬집 아기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

조금느리게 *mp*

1.엄 마 가 섬 그 늘 에 - 굴 파 러 - 가 먼 -
2.아 기 는 삼 을 끈 히 - 자 고 있 - 지 만 -

5
아 기 가 혼 자 남 아 - 집 을 보 - 다 가 -
간 매 기 울 음 소 리 - 맘 이 실 - 레 이 -

9 *mf*
바 나 가 불 러 주 는 - 사 장 노 래 에 -
다 못 찬 굶 바 구 니 - 내 리 에 이 고 -

13 *mp*
관 배 고 스 르 르 르 - 삼 이 늻 - 니 다 -
엄 마 는 모 랫 길 을 - 달 리 읊 - 니 다 -

5) 넷째 박의 f#은 변화된 II7 화음(D7)의 구성음으로 g음으로 진행만 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

〈악보 5〉는 a(4)+a'(4)+b(4)+b'(4) 형식의 선율을 나타낸다. 세 번째 b부분은 딸림화음과 으뜸화음(마디 9)의 선율로 시작해서 으뜸화음(마디 10), 버금딸림화음과 으뜸화음(마디11)을 거쳐 딸림화음의 구성음으로 마치고 있다.

〈악보 6〉 a+a'+b

어머님은혜

부동빠르게

-2부 합창-

윤춘빙 작사
박재훈 작곡



1.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 들하 - 지 만 -
2.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 들하 지 만 -



나 는 나 는 눈 - 은 계 또 하 니 - 있 지 -
나 는 나 는 넓 - 은 계 또 하 니 - 있 지 -



냥 으 시 고 기 르 시 는 어 머 님 - 은 혜 -
사 람 되 라 이 르 시 는 어 머 님 - 은 혜 -



푸 른 하 늘 그 보 나 도 높 은 것 - 같 아 -
푸 른 바 다 그 보 나 도 넓 은 것 - 같 아 -

〈악보 6〉에서 셋째 단 b부분의 선율을 살펴보면 앞의 예들과 같이 딸림화음(마디 9)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 선율은 으뜸화음과 딸림화음(마디 10)을 거쳐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마디 11)의 선율로 상행한 후 딸림화음으로 마치고 있다.⁶⁾

6) 여기서 마지막 g음은 으뜸화음의 선율로 화성화 할 수도 있으나, 실습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딸림화음의 선율로 결정한다.

Ⅲ. 형식에 따른 선율 창작

학습자들의 선율 창작 실습은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교사가 제시하는 동기를 정해진 기본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데, 먼저 8마디 구조의 선율을 만들어 본 후 16마디의 선율구조로 진행한다.⁷⁾

1. 8마디 선율 창작

8마디의 선율 창작은 학습자들이 창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이고자 동요 선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선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1) 예제 선율

다음의 <표 1>은 학습자들이 선율을 만들 때 제시되는 화성 진행 형태에 따라 그 화음에 속한 음들로 선율을 구성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주요3화음 중 으뜸화음과 비금딸림화음은 각각 어느 화음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나, 딸림화음은 반드시 으뜸화음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비금딸림화음으로의 진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화음은 2마디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사용은 음악적 구성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표 1> 8마디 선율 창작을 위한 기본 화성 배열⁸⁾

내 용	동 기		동형진행	반중지	동기반복		동형진행	완전중지
부 분	a				a'			
마 디	1	2	3	4	5	6	7	8
화음진행형 1	I	I	IV	V	I	I	V'	I
화음진행형 2	I	I	V	V	I	IV	V'	I
화음진행형 3	I	IV	I	V	I	IV	I+V'	I
화음진행형 4	I	I	V+I	V	I	I	V'	I

7)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창작 실습을 위해 $a+a'+b+a'$ 구조만을 학습자들에게 적용시켰다.
 8) 교사는 학습자들이 주요 3화음만을 이용한 구성음들로 선율을 만들어야함을 주지시킨다. 그리고 2/4박자나 3/4박자의 선율을 창작할 때는 가급적 1마디에 하나의 화음을 사용하도록 하며, 4/4박자나 6/8박자에서는 1마디에 2개의 화음을 기반으로 하는 선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알려준다.

〈악보 7〉의 예제 선율은 화음진행 1형을 사용해서 만든 선율이다. 리듬은 2마디 동기의 리듬꼴을 반복적으로 동형진행을 이루고 있다. 이 선율에서 마디 1의 f, 마디 2의 d, 마디 3의 g, 마디 7의 e음은 화성음들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비화성음들이다.⁹⁾

〈악보 7〉 동형진행을 이용한 화음진행형 1의 선율



〈악보 8〉의 선율은 화음진행 2형에 의한 것으로 위와 동일하게 동형진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디 6에서 으뜸화음 대신 버금딸림화음의 선율로 진행하면서 좀더 세련된 구조를 보여준다.

〈악보 8〉 동형진행을 이용한 화음진행형 2의 선율



〈악보 9〉의 선율은 화음진행 3형에 의한 것으로, 동기의 선율과 리듬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의 마디 7에서는 중지감을 형성하기 위해 약간 변형되고 있다.

〈악보 9〉 동형진행을 이용한 화음진행형 3의 선율



9) 모든 예에서 비화성음은 화성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강박에 사용된 비화성음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화성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악보 10〉의 선율은 화음진행 4형에 의한 것으로 동기의 선율과 리듬꼴이 동형진행을 이루고 있는데, 마디 7의 마지막 b음 하나만 변화를 주면서 8마디가 거의 동일한 a+a의 구성을 보여준다. 특히 마디 7의 셋째 박 e음은 으뜸화음의 구성음이 아닌 딸림화음으로 해결하는 강박에 사용된 비화성음이다.

〈악보 10〉 동형진행을 이용한 화음진행형 4의 선율



2) 선율 창작 실습

다음에 제시되는 악보들은 위의 예제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기를 제시한 후 학습자가 창작한 선율을 보여준다. 〈악보 11〉에서 과제로 제시된 동기는 으뜸화음을 시작으로 딸림7화음의 선율로 제시되고 있다. 마디 3-4의 악보 위에 표시된 리듬꼴은 처음으로 창작하는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선율 작성을 위해 제시된 것이다. 학습자는 이 리듬을 사용하여 동기의 응답 선율을 올바른 화성진행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마디 2가 딸림7화음의 선율이기 때문에 응답선율은 으뜸화음 상에 나타나는 것이 적당하다.

〈악보 11〉 실습 악보 - 과제 1



〈악보 12〉에서 마디 3의 응답 선율은 딸림화음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a부분의 전체적인 선율의 느낌은 3마디에 걸쳐 계속되는 딸림화음의 선율(마디 2-4)로

인하여 어색함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마디 6-7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구조를 나타내지 못한다.

<악보 12> 실습 악보 - 어색한 선율(학습자)



따라서 이 부분은 <악보 13>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동기를 반복함(마디 3)으로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좋은 진행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동형진행 기법은 마디 7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선율이 된다.

<악보 13> 실습 악보 - 수정된 선율(교사)



<악보 14>의 선율은 마디 3의 동기 응답에서 으뜸화음으로의 진행을 하지 않고 버금딸림화음의 선율로 진행하면서 부드럽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더욱이 f-b의 음 진행은 더욱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a'부분의 마디 6-7의 계속되는 딸림화음의 진행은 종지의 느낌을 둔화시키고 있다.

<악보 14> 실습 악보 - 어색한 선율(학습자)



그러나 <악보 15>에서는 마디 3에서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의 음들이 상행하면서 반중지의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마디 7에서는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음들이 위의 진행과 반대로 하행을 하면서 완전한 중지감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15> 실습 악보 - 좋은 선율(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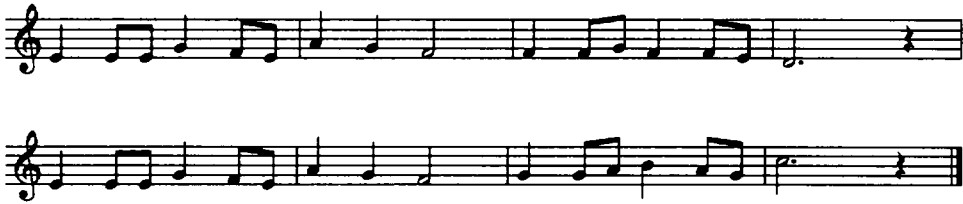
다음의 <악보 16>은 <악보 11>과 약간 다른 동기에 대한 실습 과정을 보여준다. 이 동기의 첫 마디는 위의 동기와 동일한 리듬꼴을 사용하면서 시작되고 있으나, 두 번째 마디에서는 버금딸림화음을 바탕으로 4분음표와 2분음표의 진행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마디 3의 응답 선율은 으뜸화음이나 딸림화음의 화성의 구성음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보 16> 실습 악보 - 과제 2



<악보 17>에서 마디 3의 응답 선율은 앞의 마디에서와 같이 버금딸림화음의 구성음들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으뜸화음만 사용하던지 아니면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의 선율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악보 18>은 위 악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디 3에서 으뜸화음의 선율로 진행하고 있다.

〈악보 17〉 실습 악보 - 어색한 선율(학습자)



〈악보 18〉 실습 악보 - 수정된 선율(교사)



〈악보 19〉의 선율은 학습자가 만든 것으로 마디 3에서 으뜸화음의 선율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디 7에서는 으뜸화음과 딸림7화음의 선율로 진행하면서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악보 19〉 실습 악보 - 좋은 선율(학습자)



8마디 구조에 대한 창작 실습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화음진행 패턴에 따라 적절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a 부분에서 2마디 동기를 제시하고 이것이 a' 부분에서는 동기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넷째 마디와 종지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제로 새롭게 만드는 선율은 2마디(마디 3과 마디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

습 패턴은 창작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창작을 위한 중요한 실습임을 인지해야 한다.

2. 16마디 선율 창작

선율 창작실습은 $a+a'+b+a'$ 구조에 의한 16마디로 확대하여 진행한다. 앞부분 8마디와 마지막 8마디는 동형진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8마디 창작실습에서 사용된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운 b부분의 선율 진행 규칙만 설명한다.

1) 예제 선율

다음의 <표 2>는 b부분(마디 9-12)은 선율을 구성할 수 있는 화성적 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의 선율은 4마디에 한정되기 때문에 a부분에 비해 너무 독창적인 내용 보다는 a부분의 선율과 리듬적 특징을 이용해서 앞 8마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조해주는 듯한 느낌의 선율진행을 만드는 것이 좋다.

b부분의 첫 마디(마디 9)는 대부분 버금딸림화음이나 딸림화음의 선율로 시작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교과서 동요에서와 같이 실습은 딸림화음으로 시작한다. 이후 마디 10-12까지는 딸림화음이나 으뜸화음의 선율을 사용하며(버금딸림화음으로의 진행은 가급적 피함) 화음진행 1형이나 2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화음에 의한 선율진행은 최대 2마디로 한정한다.

<표 2> 16마디 선율 창작을 위한 $b(4)+a'(4)$ 의 기본 화성 배열

내 용	a부분 리듬 활용				반종지	동기반복		동형진행	완전종지
부 분	b				a'				
마 디	9	10	11	12	13	14	15	16	
화음진행형 1	V	I	IV	V	I	IV	V'	I	
화음진행형 2	V	V	I+IV	V	I	IV	I+V'	I	

<악보 20>에서 딸림화음의 화성음만을 사용한 4분음표의 선율(마디 9)은 으뜸화음 상에서 8분음표의 선율로 이어지고 있는데(마디 10), 첫째 박의 비화성음 d와 둘째 박의 화성음 e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악보 20> b부분에 사용된 화음진행형 1의 선율

Four staves of a melodic line in 2/4 time. The notation is written on treble clefs.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and quarter notes, with some rests and a final double bar line.

<악보 21>에서 b부분의 선율은 화음진행 1형에 연속적인 동형진행 리듬을 사용하면서 a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또한, 마디 6과 14의 선율이 마디 2의 동기 선율과 달리 4도 위에서 동형진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작법은 음악의 구조적 짜임새를 증가시켜 좀더 세련된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21> b부분에 사용된 화음진행형 1의 선율

Four staves of a melodic line in 2/4 time. The notation is written on treble clefs. The melody features a consistent rhythmic pattern and includes a fourth-degree interval in measures 6 and 14, as noted in the text. It ends with a double bar line.

2) 선율 창작 실습

다음에 계속되는 악보들은 위의 예들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창작한 $a+a'+b+a'$ 구조의 16마디 선율을 보여준다. <악보 22>에서 과제로 제시된 동기는 으뜸화음을 시작으로 버금딸림화음의 선율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마디 3-4의 응답 선율은 으뜸화음을 포함하는 선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악보 22> 실습 악보 - 과제



<악보 23> 실습 악보 - 학습자 1



<악보 23>에서 마디 3-4의 응답 선율은 동기를 반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디 7에서는 선율의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어색한 종지 선율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d-c-a-b'의 선율로 수정해 주면 종지감을 줄 수 있다. 마디 9-10의 리듬과 선율은 느린 음가에서 짧은 음가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리듬배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마디 12에서는 앞의 마디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하행하는 진행 때문에 반종지의 느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b' 또는 'd' 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악보 24〉 실습 악보 - 학습자 2

〈악보 24〉의 선율은 학습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디 2의 선율은 마디 6에서 비화성음 b가 나타나면서 상행하고 하행하는 선율이 순차로 상행하는 선율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마디 7의 종지감 있는 선율은 마디 4의 평범한 리듬의 화성 선율진행을 잘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b부분은 a부분 동기 리듬을 반복하면서 진행하지만 마디 11에서 4분 음표와 8분 음표들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상승하는 반중지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 25〉 실습 악보 - 학습자 3

〈악보 25〉의 선율은 〈악보 24〉의 선율처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b부분은 8분 음표로 상행한 후 4분 음표로 하행과 상행하는 선율선이 마디 10에서 2도 위의 동형진행으로 반복하고 이것을 마디 11에서 점차 상행하여 선율의 정점인 마디 12로 연결 짓는 작법은 가장 잘 표현된 것이다. 다만, 마디 7과 마디 15의에서 연속적인 도약진행들이 부드럽지 못한 종지감을 형성한다. 이것은 마디 7, 15의 셋째 박의 a음을 d음으로 수정하면 다소 완화된 느낌을 줄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6/8박자의 선율(악보 26)은 좀 더 발전된 리듬과 선율선을 나타내고 있다. 점차적으로 상행하고 여유 있게 하행하면서 휴지하는 듯한 느낌의 동기는 마디 3에서 마디 1의 2개의 리듬꼴(♩ ♩ ♩ + ♩ ♩)을 반대로 사용하면서(♩ ♩ + ♩ ♩) 상승하여 반종지하고 있다. b부분은 동기의 ♩ ♩을 근간으로 점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선율의 역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악보 26〉 6/8박자 선율



〈악보 28〉은 위 예제를 바탕으로 〈악보 27〉의 새로운 동기에 의한 창작 실습이다. 학습자는 선율을 창작하기에 앞서서 동기에서 사용된 리듬꼴을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이루어보고 적당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 7〉에 나타난 리듬꼴은 3가지 형(♩ ♩ ♩ / ♩ ♩ / ♩)로 이것을 6박 단위로 조합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시한 것 보다 더 많은 리듬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실제로 노래 선율에서는 특정한 리듬형 몇 개만이 사용될 뿐이다. 그것은 짧은 선율에 너무 많은 리듬형을 사용하게 되면 선율의 통일성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악보 27> 실습 악보 - 과제



<악보 28> 실습 악보 - 학습자 1



<악보 28>에서 b부분의 선율은 시종일관 ♩의 형으로 지속되는데, 이러한 진행은 a부분의 선율 진행과 자연스러움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의도적으로 마디 9-10의 리듬과 선율을 강조한다면 적어도 마디 11에서는 동기의 ♩♩♩ ♩♩ 형태가 나타나야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수정된다면 선율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디 7과 15에서 셋째 박의 ♩♩♩ 리듬 역시 ♩♩♩ 리듬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악보 29>에서 a부분의 응답 선율(마디 3-4)은 동기의 리듬형을 반복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a'에서는 마디 1의 리듬을 2번 반복한 후 동기의 리듬형을 반대로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b부분은 3박 단위로 동기의 리듬을 반대로 사용하면서(♩♩♩와 ♩♩♩) 선율이 점차적으로 상행하면서 '점점 세계'의 악상을 느끼게 해준다.

〈악보 29〉 실습 악보 - 학습자 2



〈악보 30〉에서는 동기의 주 리듬형(♩ ♩ ♩)이 선율 전체에 걸쳐 계통적으로 조화(♩ ♩ ♩, ♩ ♩ ♩)를 이루고 있다. a부분도 a'와 a''(마디 13부터)로 진행하면서 리듬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화음진행에 근거한 선율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으로 제시되는 동기 선율은 마디 3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으뜸화음의 선율이 좋으며, 마디 7 역시 종지감을 나타내기 위해 으뜸화음과 딸림7화음이 좋다. 또한, b부분 마디 11의 버금딸림화음의 선율은 직전 마디에서도 버금딸림화음이 사용되기 때문에 으뜸화음의 선율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악보 30〉 실습 악보 - 학습자 3



〈악보 31〉은 위의 분석에 따라 학습자의 원 선율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수정한 선율이다. 마디 3에서 동기의 응답 선율이 학습자의 선율 보다 3도 위에서 진행하는데, 이것은 동기의 가장 중요한 6도(g-c) 도약진행을 인지하고 선율선의 높이를 동일시한 것이다. 이 응답 선율은 마디 7에서 동기의 음정과 동일하게 도약한 후 종지하고 있다. 마디 9의 b부분 역시 학습자의 선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디 11에서 선율의 최고 정점을 위해 상행하고 있다. 넷째 단(마디 13부터)에서 학습자는 a'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디 15에서는 마디 7과 다르게 6도 도약 진행후 하행하면서 마디 7을 변형시키고 있다.

〈악보 31〉 수정한 선율 - 교사



IV. 나가면서

선율창작 실습의 첫 단계는 8마디로 이루어지는 선율의 구성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서양음계에 의해 작곡된 동요 선율은 거의 대부분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갖는데, 그것은 2마디로 구성되는 동기가 으뜸화음에서 딸림화음이나 버금딸림화음(혹은 으뜸화음)의 화성적 내용을 가지면서 제시되면, 3번째와 4번째 마디에 걸쳐 동기에 대한 응답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응답의 4번째 마디는 반드시 잠시 쉬는 듯한 반중지 형태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4마디 선율구조 a는 4마디로 구성되는 a'로 동형진행을 형성하면서 반복되면서 종지한다. 이때 종지부인 마디 7에서는 딸림화음(또는 딸림7화음)의 구성 음들을 하면서 이 선율이 마감되다는 느낌을 예고해야 하며, 이 선율은 마디 8에서 으뜸화음의 구성음인 C음 하나를 사용해서 끝나쳐야 한다.

16마디 $a+a'+b+a'$ 구조에 대한 창작 실습에서는 b부분의 선율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곳은 앞부분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변화된 느낌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규칙으로의 진행만 정하고(딸림화음으로 시작하고 같은 화음으로 반중지)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예제 선율을 제시하는 것이 실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율창작 실습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 대부분 정해진 규칙 내에서 큰 어려움 없이 화음진행 패턴에 따라 적절한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그동안 무관심하게 듣고 부르던 노래가 어떠한 규칙 안에서 반복과 변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악보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된 것을 조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러한 실습 패턴은 창작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창작을 위한 중요한 실습임을 인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 교육부, 『초등학교 음악과 교과서(1-6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부, 『초등학교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1-6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 나운영, 『화성학』, 서울: 세광출판사, 1999.
- Green, Douglass. 박경종 역, 『조성음악의 형식』, 서울: 삼호출판사, 1990.
- 편집부,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1976.
- 편집부, 『음악기초이론』, 서울: 삼호출판사, 1991.